

선진국의 사회봉사활동을 보고

지난 해 페놀사건이후 우리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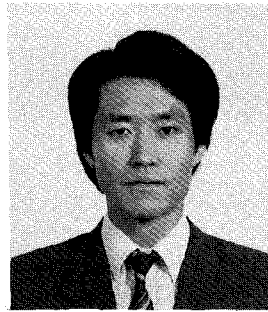
공해추방운동연합회(의장 崔例)등 시민단체가 「환경살리기운동」을 꾸준히 펴고 있고 군인·학생·주부단체 등도 이에 동참하는 등 공해추방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분위기에 맞춰 각종 상품광고도 환경보존 표어와 경구등을 사용한 「녹색광고」(green marketing)가 판을 치고 있다. 이제는 기업도 환경보존에 대한 의지와 실천노력 없이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는 「관심」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심은 높으나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누군가가 치우겠지……』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 환경훼손행위를 목격해도 지적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보호는 「실천」없는 「관심」



林國現
(세계일보 사회부기자)

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귀찮더라도, 혹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각자가 직접 관여하고 행동하려는 「사회봉사정신」이 없이는 환경은 요원하다.

얼마전 한국출신의 입양아들을 위한 캠프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에 간 일이 있다.

공항·역·버스터미널 등 가는 곳마다 자원봉사자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의 몫은 △공항 등에서 언어장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외국인 안내하기 △노인 및 어린이 보호하기 △각종 캠페인 벌이기 △장애자 돕기 등 다양했다.

시에틀공항에서 만난 30대 후반

의 한 자원봉사자는 『각 파트별로 3~4명의 사회사업가(social worker)가 있어 이들을 팀장으로 해 수십 또는 수백명의 자원봉사자가 팀을 이뤄 각자의 임무와 봉사일정 및 시간을 배정받고 있다』면서 『자신은 2주일에 한번꼴로 6시간씩 장애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티모어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1주일에 한번 5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이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5백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집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직업을 알선해주는 사회복지기관인 「웰터」나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무료급식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예외없이 수십 또는 수백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펴고 있었다.

공항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공항에서 봉사하는 동안의 차량주차비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해주지만 기름값 식사비 등은 자비로 하는 등 순수한 봉사활동임에도 지원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자원봉사활동」을 꼽았다.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으며 사회봉사 그자체를 「최고의 영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 느낀 또다른 점은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

우리는 불법주차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지만 이곳에선 차량이 불법주차하자마자 예외없이 경찰에 신고된다고 한주민이 귀뜸해 줬.

거리를 지나다 불법주차차량에 「이미 신고된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웃주민이나 행인들이 같은 차량을 놓고 잇따라 신고하는 바람에 「이 차량은 더이상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놓아둔 표지판이다.

그런가하면 천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이웃이 보게되면 어김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공항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이 역시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온다.

남을 경찰에 신고하는 그자체가 꼭 좋다고는 볼수 없으나 이같은 생활태도에서 그들의 준법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5점 만점에 4·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5점 만점에 4·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여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인식(관심)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염방지를 위한 「행동」은 3·5점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제행동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지적됐다.

여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인식(관심)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염방지를 위한 「행동」은 3·5점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제 행동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지적됐다.

주부들을 상대로한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가 생활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나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분리해 버린다는 주부는 19%에 불과해 「실천」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처가 최근 펴낸 「91환경백서」에 따르면 91년 한해 동안 버려진 쓰레기는 5천9백여만톤으로 90년의 5천3백여만톤에 비해 11.3%가 늘어났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8~9%를 크게 넘고 있고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선진국의 2배를 넘고 있어 「쓰레기줄이기」에 대한 국민각자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쓰레기 감량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행락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등으로 4대강의 수질이 악화일로에 있고, 산림훼손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폐행사건과 지난 6월 세계환경회의를 계기로 범부처차원에서 「환경되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당수의 기업도 「一社一山살리기 운동」 등에 동참하는 등 환경보전에 큰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시민들도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관심」일뿐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이다.

「푸른 산 맑은 물」은 내 자신의 조그마한 노력으로부터 되찾을 수 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때로는 귀찮고 괴롭더라도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자녀야 한다.

이같은 자세에서 「관심」이 술선수범하는 「행동」으로 옮겨질수 있고 이는 곧 「환경보전」 및 「맑은 사회」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여행에서 술선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태도를 보면서 내 자신부터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